

세상의 모든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을...

고창복지관 · 송광정심원 어버이날 잔치 '풍성'

어버이날을 맞아 전북지역 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고창군노인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선운사 주지)은 5월 6일 한국예총 슬문화단체 총연합회(이하 예총) 고창지부와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제공했다.

'복은 예술문화사랑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는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이강수 고창군수, 박현규 고창군의회의장, 한국예총 고창지부 박세근 회장을 비롯해 500여 지역 어르신이 참석했다.

탈놀이, 톨 연주, 판소리, 국악공연 등 전통공연과 가요, 팝가수, 노래자랑 등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노인인권 침해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연극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관장 무공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오신 어버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복지관 직원들이 자식의 입장에서 어르신을 모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송광정심원(이사장 도영·원장 우우호)은 5월 8일 시설 내 문화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정심원 가족, 완산별 연애 자원봉사단 조계준 단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부모님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담은 이날 행사에서는 정심원에서 생활중인 생활인 230명 가운데 60세 이상 어르신 60여 명에게 정심원 가족들이 일일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원생들의 흥겨운 자기자랑, 다과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도영 스님은 "효의 실천은 인간성 회복의 길이고, 인간성숙의 길이고 인간완성 성불의 길임을 깨우쳐야



송광정심원(위), 고창복지관(아래)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

하며 남의 부모를 자기부모 같이 봐야 참 보살"이라며 "정심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버이들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성심껏 보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심원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30명이 생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예술과 문화사랑 나눔 프로젝트

“인재양성에 불교 미래 있어”

증심사 대원장학회 24명에 장학금

광주 지역 한 전통사찰이 지역인재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의 대표적 사찰인 증심사(주지 지장)는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불교인재 24명에게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인재를 돕기 위해 증심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원장학회는 지역인재 및 불교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08년 9월 이사장에 지장 스님, 이사로 진화스님(前 증심사 주지), 강원영 거사님



장학금을 받은 불자학생들이 학업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회 회장, 오을임 조선대 교수, 이종남 증심사신도회장 등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 지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렵

고 힘든 시기일수록 교육불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불교계는 많은 인재양성을 해야 불교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학금을 받은 대불련 광주지부장 오경민(조선대 3학년)을 비롯한 대학생 10명에게는 각 100만원, 이지는(동아고 3학년)양 등 고등학생 9명에게는 각각 50만원, 문정인(종립 정광중 3군을 비롯한 중학생)엔 장학금 10만원씩이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하안거 포살법회 봉행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원행)는 5월 13일 대적광전에서 불기2553년 기축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포살법사로 나선 일원 스님은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계본으로 집중대계와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할 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법회에는 100여 스님이 동참했으며 남일 실상사에서는 30여 명의 스님이 별도로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민중항쟁 희생자 닛 기려

5·18추모 법회 · 음악회

광주 지역 불교계가 제29주기 5·18 민중항쟁을 기념해 다양한 추모행사를 열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5월 16일 광주 원각사 앞마당에서 5·18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포교사단, 자비선행회, 육화포럼, 등 지역불교계가 동참하는 법회에는 김효석 오월의빛 이사장의 추모

강연과 이화실내악단 등의 추모문화제가 펼쳐졌다. 법회에 이어서는 원각사를 출발해 금남로, 舊 도청까지 추모 제등행진이 이어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은 17일 '제2회 망월동구묘역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2009 꽃진 자리 피어나는 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광주 선덕사 주지 행법 스님과 조연옥 시인의 시낭송 등이 펼쳐졌다. **조동섭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손은순씨 효부상

어버이날을 맞아 광주지역 불자가 큰 효행으로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효부상을 수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 무각사 신도인 손은순(54·사진) 불자. 손은순 불자는 5월 8일 광주시민회관에서 국무총리를 대신한 광주광역시 박광대 시장으로부터 '효부상'을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불자의 기도방법

1)부처님을 생각하고
2)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3)승가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나의 업장을 소멸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신전에 지은 죄업을 기도로 소멸코자 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제불보살님께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신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팔부신장과 제석천왕이 가피를 베풀어 발원을 이루어 준다.

예불할 때 준수해야 될 10가지 정성스런 마음

- 1)모든 중생에게 대제대비한 마음을 항상 일으켜 손해를 더하지 않고 안락을 주는 마음으로 무손해심(無損解心)을 갖는다.
- 2)산심이 안정되어 중생에게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 번뇌하는 사람의 고통을 구제하여 주는 마음으로 무립심(無離心)을 갖는다.
- 3)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법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호하여야 하므로 낙수호심(樂守護心)을 갖는다.
- 4)지혜로 모든 법을 관찰하여 한 가지 사물에 집착하거나 고집하지 않으므로 무집착심(無執着心)을 갖는다.
- 5)세간에 섞여도 물든 법에서 떠나며 깨끗한 마음으로 만족을 알아 청정한 마음이나 기정의심(氣淨義心)을 갖는다.
- 6)정도에 태어나기를 구하며 모든 지혜로 생각마다 정도와 불중지를 잃지

않음으로 무망심(無妄心)을 갖는다.
7)일체 중생을 공경하고 자만심을 내지 않으니 무하열심(無下悅心)을 갖는다.
8)세상 사람들의 말에 집착하지 않고 무상보리도를 바르게 믿어 유혹됨이 없는 안정된 마음이나 생결정심(生結淨心)을 갖는다.
9)갖가지 선근의 마음을 일으키며 일체 번뇌와 집념을 떠나게 하니 무잡념심(無雜念心)을 갖는다.
10)부처님의 상해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무명의 상태에서 부처님을 염(念)하니 기수염심(起隨念心)을 갖는다. 요컨대 염불이란 아미타불의 이름을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고 혹은 마음 속으로 부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염불은 부처님의 서원에 부리를 둔 것이므로 정도에 태어나기 위한 바르고 결정적인 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불수행을 열심히 하여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극락정토에 가게 된다. 염불공덕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무한한 공덕을 짓고 자기죄업을 없애는 길인 것입니다. 불자들이 부처님께 자기수행을 통해서 최고의 인격을 갖춘 자(自覺된) 자기완성을 이루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사람이 사람되게 함이요 자기를 자기답게 이루는 참 자(自我)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불은 한 나무 가지에서 나온 것입니다.기도도 예불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성스런 마음인 손일무집(純一無雜) 해야 됩니다. 모든 이가 일시에 해탈성불하고 모든 나라가 불국정토가 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합시다.

불기2553(2009)년 5월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정 무학 송천

종 정 무학 송천 총무원장 법산 영봉		교무원장	
대 승 정 덕인	무중 승정부원장 무상	1. 서울교무원장: 서원암 반이치	2. 부산교무원장: 반야사 일도
승 정 원 장	월서 원로부원장 법진	3. 대구교무원장: 범종사 정산	4. 울산교무원장: 도성암 덕일
원 로 원 장	법화 중앙총회부원장 학성, 학철	5. 대전교무원장: 원광사 정인	6. 강원교무원장: 지명정사 지명
중앙총회의장	법화 중앙총회부원장 학성, 학철	7. 경기교무원장: 흥련암 흥련	8. 충북교무원장: 관음사 정명
중앙총회부원장	현우 사 정 원 장 법천	9. 충남교무원장: 구암사 무중	10. 전북교무원장: 삼불사 정안
포교부원장	학동 교 원 장 법성	11. 경북교무원장: 정암사 정암	12. 경남교무원장: 금강암 정행
문화원장	덕일 문화부원장 보성		
고 시 원 장	법일 비구니원장 효경 지명		
장재하 예경살	학림 총무원장 사살		
		포 교 원 장	학산
		복 지 원 장	법영
		수 선 원 장	도공
		비구니부원장	정명, 정연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임종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정부로부터 서기 2007년 1월 29일자로 종교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전국에 승려, 법사, 창건주, 재가불자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 전법하며 본 종단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 할 수 있는 애중심(愛衆心)을 갖고 계신 분을 찾습니다.

1. 임종자격: * 사찰을 운영하시는 참신한 승려, 법사, 포교사, 창건주, 불기에 뜻이 있는 분 * 불교대학교 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는 본 종에서 특별대우로 임종함
2. 구비서류: 법복(가사+장삼) 착용한 사진 3매(여권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지필 이력서 1통
3. 교부서류: 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 사찰 등록증, 승려증, 법사증, 본 종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 년말 기부증서 (승려로써 출가를 원하는 분은 소정의 서류심사와 총무원장의 인가에 의해서 출가가 가능합니다)

■ 종본산(총무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 문의전화: 042) 935-2279, 524-2149, 011-406-8538

(사)대한불교 금강종 법인 이사장 겸 총무원장 법산 영봉

“장기 후원 확보로 재원 만들 것”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생명나눔광주전남지역본부 주영오 사무국장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으로 다게한번 전국민의 주목을 받은 단체가 있다. 바로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일면)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기도 한 생명나눔실천회는 빛고를 광주에서도 널리 알려진 단체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가 활동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생명나눔의 중심에서 실무팀을 이끄는 주영오 사무국장(사진)이다.

광주생명나눔은 1998년 영조스님을 초대 본부장으로 창립돼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시를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공사업 27곳에 선정돼 백혈병 환자 치료비 지원, 장기기증 및 헬스관 헌혈공여사업, 헌혈은행 등 복지사업 등을 전개해 왔다. 2003년, 2004년, 2007년, 2008년 광주광역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우수시민단체상을 비롯해 2005 광주MBC 희망대상 우수상, 전남대 올해의 후원단체상을 연이어 수상한 광주의 우수 시민단체이기도 하다.

또한 매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와 캠페인, 생명나눔의 집을 개설해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사상을 전하는 전법단체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주영오 사무국장은 "현재는 4대 본부장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취임으로 한단계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중이다. 주영오 국장은 새로운 광주생명나눔을 만드는 큰 책무를 갖고 지난 3월 업무를 시작했다. 주 국장이 부임한 후로 광주생명나눔 사무실과 활동에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사무실 환경 개선과 후원자 확보가 그것. "향후 기업과 단체 후원자 모집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히 단체의 기부금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자 모집과 다양화는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숙원사업에 해당한다. 광주생명나눔이 어렵지 않게 후원자 모집을 확장하는 비결은 주 국장의 폭넓은 인맥과 사회활동 때문이다. 주영오 국장은 공무원과 교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행정통이다. 특히 광주대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지내며 노동

자의 권리를 위해 식발투쟁을 하며 살아왔다. 그가 힘든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의 삶으로 변화한 것은 바로 불교와의 만남이다. "원래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른이 돼 스님들의 수행하는 과정과 세상을 바라보는 불교의 가치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야말로 '절사발'이 됐지요." 주영오 국장은 "캠페인의 다양화, 홍보도구의 부족, 홍보의 새 아이덴티 개발, 나눔의집 추가 개설, 자원봉사자 교육 등 아직도 광주생명나눔이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광주생명나눔은 주 국장의 리더십에 따라 캠페인을 위한 홍보 동영상과 책자가 제작중이며, 나눔의 집도 5곳이나 추가 개설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아카데미'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생명나눔의 지난 10년의 알찬 내용들을 더욱 보강해, 앞으로 10년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설립 10년차를 맞은 광주생명나눔의 주영오 국장의 각오에서 울컥은 불교활동가의 모습을 발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